

“實踐지향적 政策의 前向的 추구를...”



李 殷 雄
(서울大學校 명예교수)

금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벌써 超科學時代 또는 첨단과학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뜻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革新善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며 인간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며,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는 사회경제도 발전되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정부수립에서부터 1961년까지 10여년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전달하는 정부기구로서는 文敎部 기술교육국의 과학기술과가 있었을 뿐이고 1962년에서야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이 생겼다.

드디어 1966년에 와서야 전국과학기술자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자리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科總)의 설립이 결의되는 동시에 대정부 건의로 경제기획원과 동격의 科學技術院을 설치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그 다음 해인 1967년에 과학기술자들의 아쉬움을 남긴채 科學技術處의 발족을 보았다.

그후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실적은 특히 투자면에서 과학진흥을 부르짖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듯 매우 미흡하였다. 하지만 오늘의 과학기술 수준을 이룩한 것은 오로지 우리 과학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믿어진다.

또한 그것은 매우 낮은 과학기술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일면도 있으며 아직까지는 프론티어를 달리는 과학기술의 연구보다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를 많이, 그리고 질높게 양성하는 것이 그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요건이라고 믿는다.

모든 일이 그러 하듯 초보단계에서는 意志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것을 성취하려면 각별한 조치와 남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과학자만이 아니라 많은 식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올바른 방향의 설정, 충분한 투자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지향적 정책변신이 전향적으로 추구되어야함을 강조한다.